

妓女들 작품 새로이 照明 학구적 性格 갖췄으면

朴乙洙의 「時調詩話」를 읽고

우리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담은 한국문학의 원류이자 精華인 시조를 빼놓고 우리 민족의 얼과 맥을 짚을 수는 없을 것이다. 朴乙洙 교수의 「時調詩話」(성문각)는 시조문학의 역사에 독특한 조명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작업에 보탬을 주는 力著의 하나로 꼽을 만하다.

지은이는 시조문학에 오랜 세월을 潛心하면서 그동안 「한국古時調史」 「한국시조문학사」는 우리 문학사의 귀중한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등의 성과를 내놓은 바 있는데, 이 책에서는 妓女들의 시조에 주목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시조가 儒家 이념의 전달기능 일반도에

머문 감이 있음에 비해, 기녀들의 작품은 구체적 인간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하였을뿐 아니라, 몇몇 秀作의 경우 고도의 상징적 수법까지 구사함으로써 시조를 자칫 성리학의 쇠퇴와 운명을 같이할 위기에서 구출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기녀들이 풍류한량들과 和唱한 많

은 노래 가운데 11수를 골라 엮고 자상한 해석을 곁들였다.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지리함을 주지 않도록 꾸며져 있다.

또한 부록으로 첨부된 「풍류의 꽃, 기녀의 정체」편에서는 기생의 어원·명칭·사회적 기능·생활단면 등을 체계있게 정리해 놓았으며, 특히 시조문학에 참가한 31명의 여류작가

작품목록 및 詩話에서 제외된 작품을 낱낱이 제시한 점은 학술적인 자료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古歌 評역」부분에서 고려가요 「서경별곡」을 깊이있게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적실한 감상 기회를 베풀고 있다.

전체적으로 밀도있게 다루어진 기녀들의 시조문학 세계를 어색하지 않게 대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다만 좀더 학구적인 문헌으로서의 성격을 빈틈없이 갖췄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또한 시조문학에의 접근을 보다 친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일반독자들을 위한 뜨거운 배려임을 고려한다면 넉넉한 애착심이 절로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재섭

教師·서울 동대문구 면목 3동 449의 9호 21통 2반

일제하 流移民의 비극적 삶 한국근대詩史에 편입

尹永川의 「한국의 流民詩」를 읽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한국현대문학사가 온전한 내용과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라는 안타까움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학문·사상의 자유'라는 연구자들의 요구가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다소 제물을 차지하게 된다면, 문학사 연구에 있어서도 왜곡·소실되어버린 문학 유산의 상당 부분을 복구하여 온전한 의미망을 회복하는 노력들이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의 유민시』는 필자가 책머리에 밝혔듯이 '한국문학의 총체적 인식을 위한 통일문학론으로 귀결'되기 위한 일련의 필요한 작업

중의 하나다. 일제의 식민지 침탈에 의해 대량 발생, 간도와 시베리아 등지로 어쩔 수 없이 떠나간 流移民들의 비극적 삶을 탁월하게 형상화한 많은 시들이, 이 연구서가 나오으로써 비로소 한국근대시사에 편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기존의 詩人 연구가 1930년대의 탁월한 몇몇 시인들을 어떤 이유로든 소홀히 해 왔다는 것과, 근본적으로는 시인 중심의 연구에 편중하여 많은 무명시인들의 당대 삶에 밀착된 작품들이나 민요의 계승작업들에 눈을 돌리지 못했다는 점을 새삼 반성

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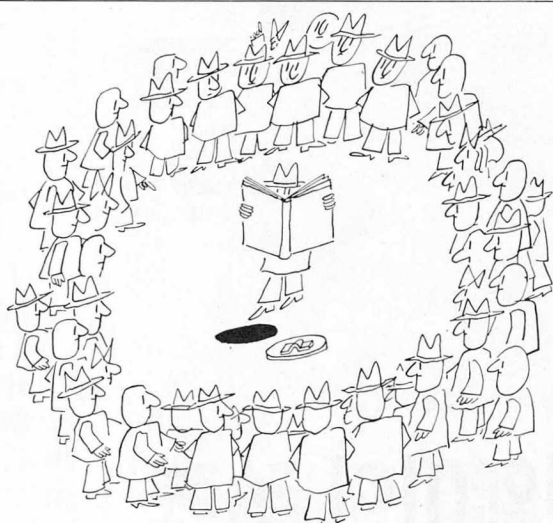
또한 현대문단사에 있어 분단 이후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된 '순수문학주의'의 폐해로 인해 문학과 현실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문제삼는 연구작업을 소재주의, 정치주의로 몰아붙이게 된 경향에 대해서도 이 책은 일정한 반성을 가하게 한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선진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를 드러낸다. 우선은 문학사회학적 방법론이 갖는 일반적 문제로서, 문학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분류체계가 문학적

평가에 어떤 식으로 매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필자는 머리말에서 '예술적 형상화'를 주요한 기준으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그 적용이 단순하게 정치적 구호, '주의자'들의 경직성과 구별되어서만 평가된 감이 있다. 이러한 거친 방법론으로서의 문학사회학적 분석이란 또다른 식의 '순수주의'의 위협을 보여준다. 이는 이 책이 풍부한 자료와 사실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전체적 조망-사회 경제적, 문학사적-과 아직은 튼튼히 연결돼 있지 못하다는 데서도 연유한 것 같다.

임영하

대학원생·서울 종로구 사직동 304-43



이반 스타이거작

참담했던 民族恨의 뿌리를 캐는 감동의 大河!

잃어버린 王國

崔仁浩 大河소설

● 1984년 韓日 지식인의 船上 토론에 참여하였다가 받았던 일련의 충격에 의하여 「朝鮮日報」에 쓰기 시작한 大河歷史小說!

● 비정한 침략자 가즈라, 그의 첩자 사꼬오, 풍운의 정치가 김춘추, 뜨거운 여자 온사너... 숨가쁜 시대의 주인공들이 이 속에 살아 움직인다.

국판 / 호화장정 / 각권350면 내외
원색화보사 / 각권값 3,500원
전국서점절찬판매중!

서울 종로구 평동 20-9
737-7611~3, 737-7086